

## 3) SPACE21 기채 상환 내년부터



## 5) 후보자들의 대학생 '패싱' 해답은 전입신고로 꾀한다



## 8) 국제캠 학식, 여전히 '불만족'

01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학생식당에 만족하십니까?

단위 :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5

12.8

35.5

47.3

02

이전과 비교하여, 가격 인상 후 학생식당에 만족하십니까?

단위 :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7

7.1

28.8

61.9



지난 5월 29일 우리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홍릉포럼이 열렸다. 이날 서울시와 고려대 등 홍릉지역 일대 대학들이 모여 바이오·의료·벤처·도시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학교는 3대 전략으로 ▲스마트에이징시티 ▲바이오헬스 R&D ▲문화예술 융복합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사진=박지영 기자)

## 'SPACE21 사업 2단계' 시동 걸리나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21 (SPACE21)'이 2단계에 접어든다. 현재 2단계 사업 총괄 수행을 위한 'SPACE21 2단계 사업추진단(사업 추진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5월 15일 미래정책원은 총무관리처 관리팀과 재정예산처 건설기획팀이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추진 단 구성원을 수립했다.

SPACE21 2단계 사업은 새로운 시설 건설과 노후시설 개선, 일부 단과대학 외관 리모델링 공사 등을 골자로 한다. 신축 계획에는 글로벌광장 및 글로벌타워,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미래과학관 건설과 구 한의과대학 부지 유동화가 포함됐다. 단과대학 건물 리모델링 공사는 서울캠퍼스 정경대, 문과대와 국제캠퍼스 외국어대 건물이 대상이다.

사업추진단은 총장직속 임시기구로 아직은 조직 구성을 위한 인사발령과 본격적인 업무착수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정책원 방철호 계장은 "관리팀을 비롯한 행부서체 계로도 일반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보다 전문화된 거버넌스가 있는 편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추진단 신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추진단은 건설 디자인·설계 기획을 수립하고 관리할 총괄기획 그룹과, 구체적인 공사계획의 집행을 담당할 실행그룹이 통합돼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1단계 사업 당시 기획기능은 재정예산처 건설기획팀에 있고 실무는 'SPACE21 건설 사업단'이 담당한 반면, 2단계 사업 추진단은 기획기능과 실무기능을 아우르도록 구성됐다. 방 계장은 "전문성과 통합성이 겸비된 조직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PACE21 사업의 기원은 개교 60주년이었던 2007년 3월 20일 발표된 '캠퍼스 마스터플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캠퍼스 마스터플랜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과 연구중심 특성화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세웠다. 당시 2020년까지 총 3단계로 나눈 실행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그러나 캠퍼스 마스터플랜은 사업 내용과 구성원 소통을 둘러싼 각종 잡음 속에 본격적인 착수가 미뤄졌다. 2010년, 캠퍼스 마스터플랜은 SPACE21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출범식을 가졌으나 기존 계획이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11년에는 사업규모 축소가 결정됐다. 2014년 말에서야 신축 건물의 건축승인을 받았고 2015년 중순에 이르러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최초의 마스

터플랜 발표로부터 8년 만이었다. SPACE21 1단계 사업은 2015년 착공부터 아름원, 한의대·간호·이과대 신축단과대학동 완공까지이다. 이를 담당한 건설사업단은 2월 28일 종무관리처로 통폐합됐다.

한편 1단계 사업이 종료됐지만 사용승인신청, 민원처리, 하자보수, 조경, 추가공사 등 관련 업무들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단 해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방 계장은 "관리 제반 업무는 총무관리처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추가 공사업무는 재정예산처 건설기획팀이 맡고 있다"며 "후속 업무들은 기존 조직에 효율적으로 안배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총무관리처 정진봉 처장은 "건물의 개·보수나 관리는 원래 총무관리처 담당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단 해산 후 총무관리처에 신설된 업무는 사용승인 관리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미술학원을 하던 부인과 자녀를 두고 떠난 유학길이었다. "전시회와 부인의 학원 수입으로 유학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IMF가 터져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박동문은 급한 대로 전시회를 하던 갤러리에서 300만 원을 빌려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로 떠났다. 피에트라산타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름난 대리석 산지로 미켈란젤로, 도나텔리, 헨리 무어 등 세계적 조각가들이 그곳을 작업 터로 삼았다.

### 조각에 매료돼

### 이탈리아로 떠난 박동문

혼자 떠난 이탈리아 유학. 가족의 빈 자리는 컸다. 결국 가족을 이탈리아로 데려와 지금까지 그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박동문의 부인은 "남편이 없던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자녀 교육에도 좋을 것 같아 남편과의 동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10년 만에 국내에서 개

인전을 갖는다. 1.2톤의 대리석 조각을 천장에 매단 '무한 기둥' 작품이 첫 선을 보인다. 바닥에 설치하는 조각 작품의 고정관념을 깬 '무한 기둥'에도 박 동문의 작품관이 녹아있다. 박 동문에게 조각과 작업이란 '인생의 전부'다. 그는 "저는 작품에 인간 박은선과 인생을 담아낸다"며 "작품의 트레이드 마크인 균열과 틈도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작품에 틈으로 무형에 숨을 불어넣는' 박 동문은 "그 틈으로 좋은 것은 빨아들이고 나쁜 것은 뿜어내는 것을 표현한다"고 말했다.

### 끊임없는 자신과의 대화

### 꿈의 길을 연다

박 동문의 작품은 동서양을 넘나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2015년엔 이탈리아 피사국제 공항에서 한국 작가 최초로 개인전을 열었고, 외교부로부터 한국 미술의 우수성을 알린 업적을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박 동문은 "제 작품의 외적인 형태는 서양의 모습을 품고 있지만 내적인 의미는 동양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양 사상의 사례로 여백과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기둥을 통한 동양적 선의 예술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저는 괴짜한 예술가다"며 자신을 소개한 박 동문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본인과 대화하라고 말했다. "본인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고 성공을 위한 방법은 본인과 진실 되게 대화하는 것이다"라는 박 동문은 본인과의 대화를 중시한다면 성공의 문은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 시간강사 "해고 통보 받았다" … 후마 "해결방안 마땅치 않다"

〈후마〉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중핵교과 기준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실질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대책을 위해 객원교수 약 20여 명과 지난 2일 '중핵교과 교수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2일 중핵교과 고봉준 PD 교수는 "2018-2학기 중핵교과에서 객원 이상 교수가 맡는 수업을 제외하면 시간강사에게 1과목씩 배정될 것"이라며 "현재 추세라면 내년 2학기 시간강사에게 배정할 수 있는 강의가 없을 듯하다"는 메일

을 보냈다. 시간강사들이 '실질적 해고통보'라고 해석한 지점이다.

고봉준 교수는 "강사들에게는 강의료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 드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다"며 "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한된 강의 안에서 시간강사 몫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현실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고 교수의 메일 일주일 후 중핵교과 박상용 교수는 메일을 통해 "기존 시간강사들은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으며, 학교의 일방적 요청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교수자 간담회를 제안했다.

시간강사들은 간담회에서 "이번 메일은 실질적으로 해고 통보나 다름이 없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강의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1학기에 신규 강사를 9명이나 채용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2011년 후마 설립부터 함께한 시간강사 문제를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음에도 이런 통보를 한 것은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후마 정복철 부학장은 "비상사태가 확실하다"며 "이를 해결해야 후마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핵교과 시간강사들은 4일 후마

이영준 학장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 학장은 '기준 시간강사의 객원교수 전환'에 대해 "국제캠퍼스와도 논의해야 할 문제지만, 소통이 잘 되지 않아 학장 선에서 바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후마 초기부터 함께한 시간강사들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핵교과 PD 교수에게 그러한 방향을 가지라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교무처는 "후마만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다"며 "전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보류 중인 것"이라는 입장장을 밝혔다.

### 알림

### 이번 호가 2018학년도 1학기 종간호입니다

### 총장선출제 관련 기사는

홈페이지 '이슈스트림'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http://media.khu.ac.kr/khunews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전문가 칼럼

### 지방선거와 보강

이삼출(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7면



## 시선

### 사설

## 공감 어려운 ‘완벽한 계획’ 처음부터 목소리 들어야

SPACE21 2단계 사업추진단 출범을 두고 학내 일각에서 내용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이 직원사회와의 대화 없는 일방적 거버넌스의 추진을 두고 반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비단 이번 일을 차치해 두더라도 우리학교에는 과거 몇 차례나 이런 구도의 논란이 있어왔다.

대내외적으로 소통을 강조하는 학교의 자세와는 모순되게도 우리대학이 발표한 계획 중 몇몇은 구성원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거나 더디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다. 캠퍼스 마스터플랜, 발전위원회, 프라임 사업, 미래창조스쿨, 융합전공 등 순식간에 열거해낼 수 있는 이름만 한 손으로 셀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이들의 공통점은 학교가 ‘완벽한 안’을 처음부터 제시한 것이다. 몇몇 사안은 결별증적 모습이 막힐 정도로 치밀한 안이 마련된다. 본관 부서 어느 곳에서 조용히 진행돼 세상 빛을 보았을 그 계획들은, 그러나 입안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구성원의 반발과 역풍을 맞는다. 지난한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소요한 계획은 그때 가서야 다시 한 번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되는 산고를 겪는다. 입안자는 탈핵감을, 구성원은 피로와 식상함을 느낀다.

세상 어디에도 처음부터 모든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은 없다. 대학의 행정은 결국 대학을 이루는 죽 중 들인 교수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릇된 관점이 틈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시점이다. 어느 날 ‘눈앞에 들어밀어진’ 계획을 두고 구성원이 오롯이 주체적으로 계획에 공감하고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학교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은 대부분 상의하답니다. 계획이 형태를 갖추고 공개되기까지 정책의 주체인 구성원이 정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무엇인지를 모르니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반영할 수도 없다. 그 결과물이 구성원의 현실과 유리되고, 반발이 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치다.

“지금은 공개하기 좀 그렇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다. 사업성격이나 비밀을 고려해 정말 공개하기 어려운 일도 있음을 이해한다. 언론이 일반적 경영행위에까지 사사건건 판죽을 놓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대전제는 언제나 하나다. 구성원을 위해 보다 나은 경희대학교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함이다.

그러니 오히려 큰 밑그림의 단계에서 일찍 공론화를 하는 것은 어떠할까. 제 구성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디테일을 채워 넣는, 하의상 달 구조 말이다. 만들고, 반발에 부딪히고, 또 만드는 것이 지금의 과정이라면 애당초 처음부터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반발에 부딪혀 보자는 것이다. 구성원의 삶에 지대하고도 세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가지 않은 길이다. 효율과는 정 반대의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택해왔던 길에서 술하게 같은 실수를 반복해 왔다면 갈길길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함이 어려울까.

### 만평



### 이 주의 주제 - 비정규직 처우 개선

## 비정규직 없는 비정규직 TF

###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사람 이야기에는 강한 이끌림이 있다.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작은 변화의 첫 단추를 끌 수 있는 힘이 사람사는 이야기에 있는 이유다. 그렇기에 글에 사람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 우리학교 비정규직 실태를 다른 기사에서도 비정규직의 이야기를 담고자했다.

지난해 11월 우리학교를 떠난 비정규직 김 씨를 어렵게 알게 됐다.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김 씨는 퇴사 한 달 전 부서로부터 정규직 전환도 제안 받았다. 하지만 김 씨의 정규직 전환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승인 거부’ 학교는 단호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김 씨는 지난해 8월 31일을 끝으로 학교를 떠났다. 어느 우리학교 비정규직처럼.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따르면 2017년 우리학교 비정규직은 463명으로 전체직원 905명의 51.3%에 달한다. 52.8%의 고려대와 1,2위를 다투고 있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정규직 직원 비율은 모두 50%를 넘어섰지만, 최근 3년 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단 한명도 없었다. 비정규직 공화국이라고 풍자되는 우리 사회가 우리학교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희 대 노동조합(노조) 김종현 위원장은 기형적인

비정규직 비율을 두고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올해 오랫동안 굳게 잡혀있던 정규직 전환의 문이 드디어 열릴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다. 비정규직 TF가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노조와 인사처가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TF에서 양측이 우리학교 비정규직의 처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의견 접근을 보였고, 향후 논의에서 2년 단기계약 내 놓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는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에 정작 비정규직에게 허락된 자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없는 비정규직 TF가 진행되고 있었다. “교수들까지 우리를 조교로 취급했어요. 비정규직을 구별해 정규직에게만 직원다운 대우를 했어요. 비정규직은 사실상 조교 취급당했죠.” 김 씨는 우리학교 비정규직이었던 지난날을 이와 같이 떠올렸다. 김 씨의 토로에는 우리학교 비정규직의 현주소가 날낱이 드러나 있다.

직원다움이란 이들에게 넘을 수 없는 높은 벽과 같다. 직원다운 대우는 정규직에게만 허락된다는 비정규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규직 전환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차별의 벽을 허무기 위해선 이번 TF에 비정규직의 이야기가 반드시 담겨야하는 이유다.

### 대학은 지금

## 모였다가 흩어지는 학생사회

안나연 기자 na@khu.ac.kr

지난 7일 한신대 총학생회(총학)가 기자회견을 통해 연규홍 총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뇌물선거 무효”…한신대 총학, 총장 퇴진 촉구/한국대학신문, 2018.06.08) 기자회견 이후 총학은 “비리총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장공관 정문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총학은 기자회견에서 “연총장은 지난해 총장선거에서 초빙교수 A씨에게 전임 교수직을 약속하며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총학은 오는 12일 총학, 직원노조, 교수협의회, 대학본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에서 연총장에 대한 신임평가 결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서울대 수의대 학생회, 학생·소수자인

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수의대 H교수 성폭력사건 #위드유 연대’(수의대 연대)가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수의대 H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려…H교수 공개 사과한다/대학신문, 2018.06.02)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H교수는 4월 말 학생 요구로 1학기에 맡은 수업을 중단했으며, 곧 공개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상태다. 수의대 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H교수의 자진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또 사건 공론화를 저지한 학장단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선 전국 수의대생 1,089명이 서명한 ‘서울대 수의대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업서 명문이 낭독됐다.

중앙대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동연)의 인권의식을 비판하는 ‘동아리연합회 인권의식 고발’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서울캠 동아리연합회 인권의식 고발 기자회견 열려/중대신문, 2018.06.07) 비대위는 지난 해 중앙동아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의혹사건을 동연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연은 기자회견 끝에 “오늘 밝혔던 내용은

대자보를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였다.

지난 2일 연세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총여학생회 재개편 학생총투표’ 안건이 가결됐다.(표 끝에 선 총여학생회/연세춘추, 2016.06.04.) ‘제29대 총여학생회 퇴진 및 총여 재개편 추진단’과 ‘우리에게는 총여학생회가 필요합니다’ 측이 주요 발제자로 중운위에 입회했다. 두 주체는 총여 자치권과 재개편 안에 대한 논의 끝에 ‘총여 퇴진은 하지 않되 재개편만 투표에 붙이는 것’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전자투표를 통해 총여학생회 재개편을 두고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 전체학생총회(학생총회)가 지난 2017학년도 2학기에 이어 이번 2018학년도 1학기에도 무산됐다.(학생총회, 이번에도 또 무산/서울시립대신문, 2018.05.29) 정족수 미충족이 이유였다. 재학생의 10%가 현장에 참석하거나 사전 서면동의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져 정확한 인원 파악이 어려워 개최가 불가능했다.

## 비판과 비난, 그 한 끗 차이

### 세시봉

박지영 〈편집장〉



이제는 볼 수 없게 돼 버린 ‘무한도전’이 2년마다 개최한 ‘가요제’ 특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는 노홍철과 싸이의 ‘흔들어주세요’다. ‘님’이라는 글자에다 점하나 콕 찍자마자 바로 남 된다’라는 가사는 지금도 떠오르는 구절이다. 처절하게 사랑했던 연인이 한 순간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릴 때의 아찔한 기억을 이토록 유쾌하게 풀어냈으니 말이다. 그 찰나를 ‘점 하나’라고 표현한 그들의 센스에 무릎을 탁 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기사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받던 어느 하루의 이야기다. 나름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내가 한 기자의 기사를 평하자마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다. “이게 기사야?” 가시 돋친 한 마디가 화근이었다. 그 첫 마디 이후에는 화도 내지 않았고 차분하게 기사의 장단점을 짚은 데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 준 터라 ‘다음엔 더 잘하겠지’라는 뿐듯한 생각으로 회의를 마쳤다.

### 건전한 비판 이어나가길

그러나 다음날, 기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그 기자는 나의 감정 섞인 첫 마디로 인해 그 뒤의 피드백을 듣지 못했던 것 같다.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행위인 비판에 감정이 한 스펠 섞이면 비난으로 탈바꿈할 수 있음을 체감한 순간이었다. 그야말로 ‘말 하나’ 콕 찍자마자 남 됐던 순간이다. 백 마디의 비판이 아무리 타당하고 옳다손 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더구나 상대방의 가장 예민한 부분인 분노, 억울함, 자존심 등을 건드리는 한 마디는 이후의 이성과 논리를 요단강 건너게 만드는 죽매제에 불과한 것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비판에는 합당한 논리와 더불어 더욱 잘됐으면 하는 예정이 담겨있어야 한다. 예정이 담겨있지 않다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게 되고, 이 또한 비난과 다르지 않다. 논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꼬리잡기 하듯 알맹이 없는 말들만이 허공에 맴돌 뿐이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에는 대안도 수반돼야 한다. 비판을 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에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밟을 템지’와 같은 해결책이 있어야 진짜 나아갈 수 있다. 이렇듯 비판다운 비판을 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법륜스님은 “비난과 비판이 어떻게 다릅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머리가 아프면 비난이고, 머리가 명석해지면 비판입니다.” 길다면 길었던 대학주보 생활의 마지막을 앞두고 나는 기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을까, 명석하게 했을까를 곱씹어 보는 요즘이다. 기자들의 음주 횟수가 증가한 걸 보니 애석하게도 술이라는 두통약이 필요했던 것 같다. 요 근래 ‘술 한잔 하자’고 연락 오는 취재원들도 급증하니, 그들에게도 나는 씩 좋은 기자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까지 대학주보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다고 느꼈을 분들에게도 사과드린다. 대학주보는 앞으로도 건전한 비판의 공론장이 될 것임을 믿으며 마지막 세시봉을 마친다.

### 알림

#### 대학주보에

####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숙 | 편집장 박지영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SPACE21 2단계 추진 사업단 신설 경희대·경희학원 노조 반발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지난 15일 신설된 'SPACE21 2단계 사업추진단(2단계 사업추진단)'을 두고 우리학교 직원 노동조합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미래정책원이 지난 17일 2단계 사업추진단 설립을 공표하고, 관련 직원 인사발령을 요구한지 1주일 만에 경희대 노동조합(경희대 노조)은 24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어린아이가 '쌓고 부숴 버리는' 레고 놀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경희학원 노조) 또한 "정치적이고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이라며 "SPACE21 사업이 추진돼 왔던 지난 12년 동안 늘 그래왔기 때문에 놀랄지도 않고 새삼스럽지도 않다"고 밝혔다.

경희대 노조는 "우리대학은 지난 2월 28일 SPACE21 1단계 사업을 진행했던 SPACE21 건설 사업단을 관리팀으로 통폐합했다"며 "무리하게 조직을 통폐합한지 불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학이 기존 SPACE21 사업 조직을 복원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2단계 사업 추진단 설립 과정에 협의가 전무했다는 입장이다. 경희대 노조는 "거버넌스 관련 변경 사항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밟도록 정해놓았음에도 이번 추진단 복원 과정에서 어떠한 협의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정책원은 조직 복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래정책원 전략기획팀 정민섭 팀장은 "이미 마무리된 1단계 사업과 앞으로 진행될 2단계 사업은 전반적인 사업방향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1단계 사업을 진행했던 SPACE21 건설 사업단과 2단계 사업추진단은 별개의 조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 팀장은 "SPACE21 사업과 관련된 조직은 임시조직의 성격을 갖는다"며 "임시기구를 만드는 데까지 노조의 전적인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노조와 타협을 위해 논의가겠디"고 덧붙였다.

두 노조 모두는 사업추진단장 아래 MA(Master Architect), MA 아래 다시 대표건축가는 위치해 있는 2단계 사업추진단 조직 위계에 대해서도 '옥상옥'이라며 비판했다. 경희대 노조는 "대표건축

가-MA-추진단장'으로 이어지는 옥상옥 같은 조직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사업추진단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고만 하는 직책이다. 사업추진단장이 실행업무를 총괄하는 MA와 대표건축가를 장악할 수 있는지, 나아가 추진단장이 주어진 업무를 어떤 권한을 갖고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경희학원 노조 박경규 지부장 또한 "그동안 구성원들의 비판을 한 대 받은 책임부총장 제처처럼 더 심한 옥상옥구조가 있었다. 이에 비하면 이번 사안은 미비할 정도"라며 "옥상옥 직위부터 옥상옥 부서까지 그간 우리학교는 불필요할 정도로 과다한 조직구조를 운영해왔다"고 지적했다.

### 노조, 사업단 조직 구조도

#### '옥상옥'이라 비판

이외에도 대표건축가는 직책에 대해서 한 건축학과 교수는 "시중 건축업계에서 MA와 대표건축가는 보통 공존하기 힘들다"며 "MA는 총괄건축가, 책임건축가 정도로 번역된다. MA와 대표건축가는 거의 등등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미래정책원은 "MA와 대표건축가는 행정조직 밖에서 외부 자문을 구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옥상옥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면서 사업추진 단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단장은 행정조직의 수반으로서 단장의 결제를 받지 못한 행정행위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2단계 사업추진단 신설뿐만 아니라 그간 우리학교 내 조직의 존폐가 한없이 가벼운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문제도 지적됐다. 경희학원 노조 박경규 지부장은 "지난 12년 동안 수없이 신설되고 폐지됐던 SPACE21 관련 부서들은 졸속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조직이 생색내기와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성과가 지지부진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경희대 노조 또한 "조직의 폐지와 신설은 그 명칭과 서류내용, 형식적 풍부함에 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숱하게 만들어졌던 조직의 끝을 보면 우려가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보도

# ‘후마 재도약 실행위’ 열려 … “내부문제 해결 먼저 아니나”

## 후마 커리큘럼 개편

안나연 기자 na@khu.ac.kr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가 올 여름 중으로 재도약을 위한 논의를 실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양 캠퍼스 부총장은 위원장으로 운영하게 될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을 위한 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는 빠르면 2학기, 적어도 내년 1학기부터 후마니타스 칼리지 커리큘럼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양 캠퍼스 부총장, 교무처장, 후마 학장 및 PD 교수진 등이 참여한 실행위원회의 상견례 및 1차 회의가 진행됐다.

## 후마, ‘액션플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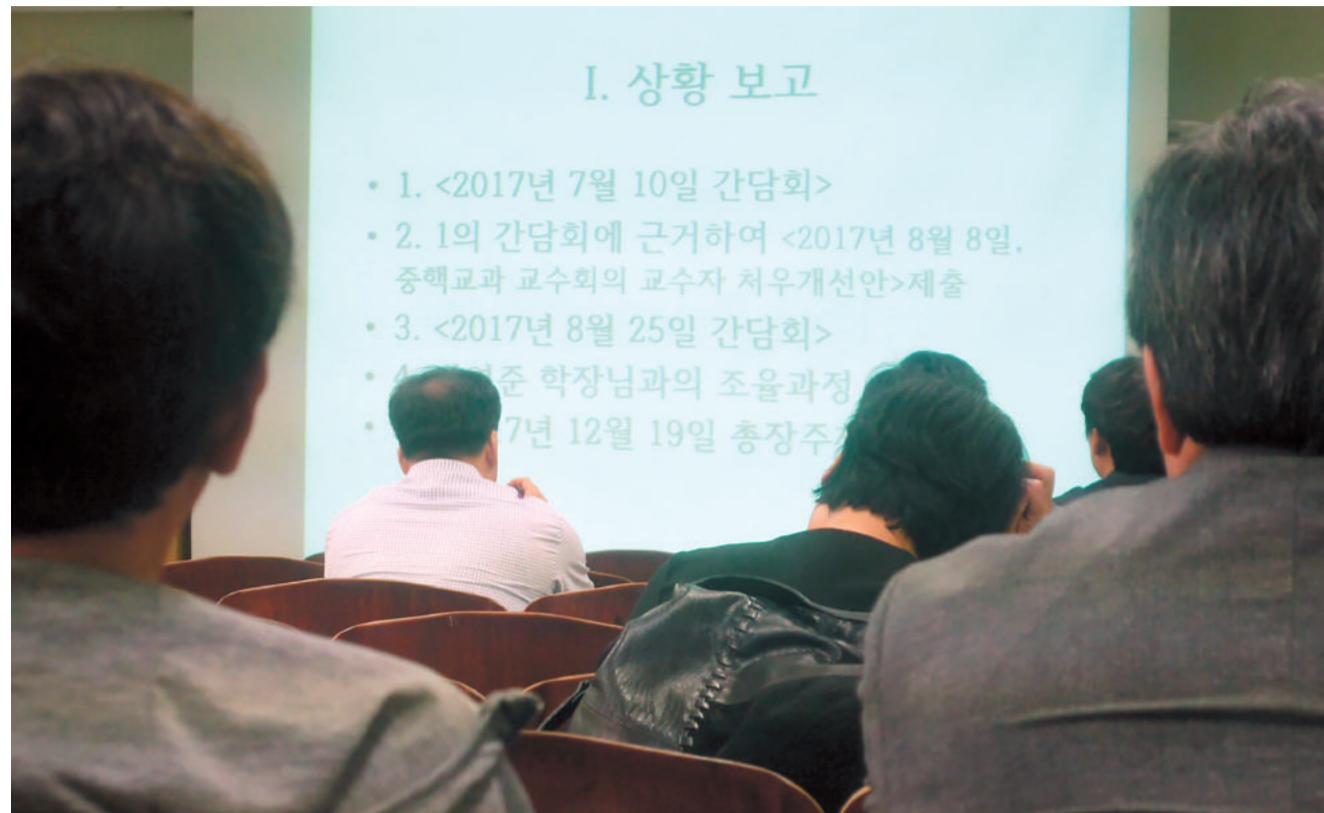
## 여전히 문제점 잔존

후마는 이미 ‘후마 교양교육 혁신 방안(혁신안)’을 ‘액션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했다. 혁신안은 작년 여름에 진행된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 특별TF’(특별TF)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안은 학사 운영 개선 및 교과 운영 개선,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연계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2018학년도 1학기 현재 총 45명에서 35명으로 대폭 줄었다. 후마 이영준 학장은 “대형강의 7개를 줄이고 소형강좌를 늘려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TF에서 논의된 사안 중 ‘평가 체계 전면 쇄신’처럼 실행되지 않은 것도 남아있다. 이 학장은 “평가에 관해서는 현재 구성원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체가 모이기 때문에 존중과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서 학습으로’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전 교과에서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후마에 아직 남아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평가 방식 전환, 교육 방식 개편, 교과 목 개편이다. 이는 지난 특별TF에서 실행되지 않은 ‘성적 평가가 아닌 역량의 평가’, ‘발표-토론-글쓰기’ 도입,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교과목 신설’과 이어진다.

‘성적 평가가 아닌 역량의 평가’를 실천한 좋은 예는 이화여대다. 지난 3월 이화여대는 ‘학부 교수자율평가’를 도입했다. 학부 교수자율평가는 성적 평가에 있어 교수의 재량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성적평가를 유연화하고 학생 간 경쟁을 자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획일



지난 2일 기준 시간강사들과 객원교수들이 모여 ‘중핵교과 교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 최명규 기자)

적인 상대평가로 학생 성적을 평가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절대평가를 사용하거나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결합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평가를 선택하더라도 A학점 비율을 35%로 제한하던 성적 등급별 인원 제한이 사라졌다. 이화여대 교무처 측은 “해당 제도는 이번학기가 끝나면 단과대학 별로 교수진에게 연락해 문제점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이는 2018학년도 시범 운영되는 동안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말했다.

## ‘발표-토론-글쓰기’ 교육과정 도입

## 학습 방식 전환 이루자

실행TF의 팀장인 지구사회봉사단(GSC) 단장 우기동 교수는 지난 4일 진행된 상견례 자리에서 “평가 방식의 경우 후마가 처음 설립될 때에도 나왔던 의견”이라며 “2011년 후마 출범 당시 ‘시민교육’처럼 활동이 포함되는 교과목의 경우 상대평가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탐색’을 비롯한 대다수의 교과목은 상대평가로 남았다”고 말했다.

또한 ‘발표-토론-글쓰기’ 위주로 교육방식을 개편하는 것 역시 후마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다. 이는 지난 해 여름 진행된 특별

TF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다. 이때 보고된 ‘혁신안’은 “학습의 방식 전환을 위해 전교과에 ‘발표-토론-글쓰기’를 도입해 학사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언급됐다.

‘발표-토론-글쓰기’를 교육과정에 도입한 긍정적인 예는 고려대가 있다. 고려대는 이번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자유정의 진리’ 교과목을 공통교양으로 채택해 신입생은 의무적으로 이를 수강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가치탐구의 양상을 살펴보고 세계에 대한 이해와 실천적 인식을 배우는 내용으로 우리학교의 중핵교과와 유사하다. 해당 교과는 한 학기 동안 7개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한 개의 강좌별로 총 2주에 걸쳐 수업한다. 일주일에 75분 수업을 두 번 제공하는 강의임을 감안하면 학생은 4 번의 수업을 통해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다.

고려대 기초교육원 이상조 과장은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교과와 사회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 해당 교과목을 공통 교양으로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토론과 발표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하나의 강좌를 듣는 80명의 학생들은 우선 학교에서 제작한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온라인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며 궁금한 점과 문제점을 정리한다. 이후 교육지원시스

템을 이용해 교수님께 질문한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업은 ‘Q&A’ 형식을 갖는다. 교수는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이 아닌 학생들이 생활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20명씩 나뉜 각 분반에서 학생이 토론한다. 이때 교수 개입은 없으며, TF(Teaching Fellow)라는 박사 학위 소지자 혹은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이 질문을 받는 조교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렇게 나뉜 분반은 2018학년도 1학기 현재 총 213개이다. 강좌를 마무리하는 수업은 토론을 하는 데 이 때에는 다시 80명의 학생들이 모인다. 조별로 논의 내용을 합동 발표하며 정리한다.

## 실행위원회 의견 차 보여

## 세부 의견 아직 협의 중

물론 우리학교 ‘빅뱅에서 문명까지’ 강좌도 대형강좌에 플립리닝 기법을 도입해 온라인 방식을 이용한 학습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대인원 강의를 다시 분반으로 나눠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는 과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이번 실행위원회의 상견례 및 1차 회의 과정에서 실행위원회 간 의견차가 보이기도 했다. 서울캠 과학 PD 공우석 교수는 “학생 의견도 중요하나 교수와 행정가까지

‘삼위일체’가 되어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며 “소수가 흐름을 결정하지 않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정을 비롯한 기반이 얼마나 마련됐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우기동 교수는 “세부적인 것보다 큰 틀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일단은 학생 위주로 재도약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롭게 변화될 후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 “학생 위주로 생각한 개혁안을 적용하자”는 입장과 “예산을 비롯해 대학본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개혁안 마련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 내부문제 해결해야

## 혁신 가능하다

또한 후마의 도약을 위해서는 내부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후마 정복철 부학장은 “중핵교과 객원, 시간강사가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교수들이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이렇게 분열된 구조 속에서 제2의 도약이 가능할런지 난감하다”며 후마 내부의 교수 분열문제와 시간강사 처우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소통의 문제도 지적했다. 정 부학장은 “국제캠, 퍼스 학장, 부학장, 두 부총장도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어떤 무게감 있는 결정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며 “소통의 부족으로 지금은 본부와 현장, 후마 양 캠퍼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양 캠퍼스 학생들의 신분 안정계획 또한 불투명하다. 불안정한 교강사들의 신분 안정을 위해 작년부터 신분 안정화계획을 실시하고 있지만,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이 “국제캠과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듯 양 캠퍼스의 계획은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캠은 중핵교과 객원교수들의 비정년전임교수 전환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는 입장이며, 국제캠 후마 김성수 학장은 “중핵교과 교수들만 신분전환을 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타 교과의 신분 안정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 2018학년도 후기 일반대학원 신(편)입학 수시전형 모집 안내

## 2018학년도 후기 법무대학원 신·편입생 모집요강(경희전형)

## 2018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실시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재학생들은 ‘강의평가’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평가 결과는 강의방법 및 강의내용 개선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학생들의 신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 ● 기간 : 2018. 6. 1(금) ~ 6. 25(월)

## ● 대상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 대상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 ● 성적 열람 및 공시 기간 : 2018. 6. 27(수) ~ 6. 29(금)

## ● 강의평가 실시 여부에 따른 성적조회 기간

- 강의평가 실시 학생 : 2018. 6. 15(금) ~ 6. 26(화), (단, 6. 24~6. 25 제외) ※ 성적입력이 완료된 강좌에 한함
- 강의평가 미실시 학생 : 2018. 6. 27(수) ~ 6. 29(금)

## ● 강의평가 실시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수업/성적/상담 → 수업 → 강의평가 클릭
  -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강의평가를 실시할 강좌를 클릭
  - 화면 상단의 답변방법 설명에 따라 설문문항을 모두 답변한 후, 강좌에 대한 개방형 질문(자유의견)을 입력하고, 하단의 [저장] 단추 클릭(저장 후 수정 불가)
  - 강좌목록 화면에서 평가를 마친 과목이 [미실시]에서 [실시]로 변경된 것 확인
  - 실시한 과목의 평가내용을 다시 보고 싶을 경우에는 강좌를 클릭하여 조회
  - 목록에 있는 다른 강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강의평가 실시
  - 강의평가 강좌 목록에서 모든 강좌가 [실시]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로그아웃]을 클릭하여 강의평가 종료
  - 강의평가를 잘못 실시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의 강의평가 담당자에게 문의
- ※ 강의평가는 공정성을 위하여 익명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일정	내용
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18. 7. 2(월) 10:00 ~ 9(화) 17: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ttp://www.uwayapply.com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li> <li>100% 인터넷 접수</li> <li>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li> <li>수험표는 면접고사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출력 · 보관 후 전형당일 지참</li> <li>제출부지 :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행정실 (에스디자인대학원 107호)</li> <li>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2018.7.9.(월) 17:00 도착분까지 인정)</li> <li>- 등기우편(2018.7.9.(월) 일부 등기소 인분까지 인정)발송</li> </ul> </li> <li>방문 제출은 토요일, 일요일 제외</li> </ul>
② 서류도착 확인	2018. 7. 3(화) 10:00 ~ 9(월) 17: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ttp://www.uwayapply.com 원서접수 대행업체 로그인 → 내 원서 보관함 → 접수 원서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클릭 → 오른쪽 중앙 ‘서류도착 확인’</li> <li>서류도착 여부 및 누락서류 지원자가 직접 확인</li> </ul>
③ 전형일시	2018. 7. 14(토)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과별 전형장소 공지 예정일 : 2018. 7. 12(목)</li> <li>공지방법 :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li> <li>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수험표 지참</li> </ul>
④ 학과별 발표	2018. 7. 23(월) 15:00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nu.ac.kr
⑤ 학과별 등록	2018. 7. 24(화) 10:00 ~ 31(화) 16: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금 고지서의 KEB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li> <li>자세한 사항은 학과별 공지사항으로 추후 안내함</li> </ul>

※ 전형료 안내  
내국인 전형 - 석사 : 75,000원, 석박통합/박사 : 85,000원, 예체능계열 : 95,000원(수수료 포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학 관련 모든 안내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 (<http://gskh.knu.ac.kr>-커뮤니티-공지사항)에 전체 공지됩니다. (지원자 개별 공지 없음)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 모집학과 및 전공(아간/주말)			
● 석사학위과정			
<b>구분</b>			<b>모집인원</b>
신입생			○○명
편입생			○○명
● 특별과정			
<b>구분</b>			<b>모집인원</b>
특별과정			○○명
●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 장학제도			
● 경희전형 일정			
<b>구분</b>			<b>비고</b>
원서교부 및 접수			2018.6.11.(월)~6.21.(목) 17:00
전형일			10:00까지 법학관 수험생대기실 입실완료
합격자 발표			2018.6.29.(금) 16:00 interlaw.knu.ac.kr
등록비자금 납부기간			2018.7.2.(월)~7. 4.(수) 예치금 : 300,000원
※ E-mail접수 : khs2670@knu.ac.kr / 우편접수는 6.21.(목) 17: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경희전형 : 전형료 50,000원			
● 제출서류			
<b>구분</b>			<b>비고</b>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본 대학원 홈페이지( <a href="http://interlaw.knu.ac.kr">interlaw.knu.ac.kr</a> )에서 다운로드





# 지방선거와 보강

전문가 칼럼

이삼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은 커녕 보강이다. 보고서도 올렸고 강의실도 확보했다. 그래도 짐작하다. 보강에 마지막에 합의하던 학생의 얼굴들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럴 줄 알았다'부터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까지 다들 마뜩찮아 했다. 이해한다. 미리 투표해놓고 밀린 토의 진도 좀 빡쳤으면 했는데. 시쳇말로 스케줄이 꼬인 거다. 미안하다. 장마 전 화려한 어느 날이어야 할 유월의 13번째 날 보강 폭탄을 터뜨려서 미안하고 또 토의 진도 걱정하게 해서도 그렇다. 군대 가는 아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난다. 미안하다. 넌 군대 갈 필요 없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가 무능해서 네 차례까지 오게 했다.

반세기 넘게 내전 하나 종식시키지 못한 거야 상대가 있는 문제라 그렇다하자. 자신의 아들딸들을 토의에, 스페어, 아르바이트에 이르기까지 온갖 걱정에 휘둘리게 해놓은 건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반값등록금 운운하더니 대학 구조조정이 먼저라고. 그래서 애먼 시간강사들이나 쫓아내고 비정규직만 늘었다. 근데 꿩 구워 먹었는지 아무 말도 없다. 일자리 없다고 하소연했더니 역시 같은 말을 되뇌면서 인문계 죽이기가 시작됐다. 이공계 늘이면 일자리는 그냥 늘어난단다. 무능에 무책임까지 더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이번 지방선거 이후 보자들의 공약도 부실하기 그지없다. 공통어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과 가상과 경계 희석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기술융합의 시대라는 어구까지 이어놓는다. 그 다음은 장밋빛 미래다. 일자리가 마구 생겨나고 생산성이 엄청 높아져 조금만 일하고 먹고 놀게 된다는 대학을 중심으로 디지털 산업 벨트를, 대학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산학협력을 비슷



기성세대의 무능은 지방선거 후보의 부실한 청년공약으로 나타난다.

(사진=중앙일보DB)

한 곡조다. 3차전 4차전 산업 아닌가. 이윤과 효율을 원칙으로 작동하는 한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냐 말이다.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문제가 있어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눅 들게 된 것은 아니다. 시답잖은 교수가 투표일에 보강을 잡는데도 이들이 폐기 있게 거부 못하는 건 '왜 생산하느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왜 창업을 하는가, 왜 취업을 하는가, 왜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윤을 남기며 재투자를 하는가. 다시 말해, 왜 사는가. 먹고 살 자고 그러는 것 아닌가. 혼자만 말고 같이 먹고 살자고. 사양업종을 정리해서 산업을 날씬하게 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을 날렵하게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인다. 거기다 디지털 뭔가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증대라는 이런 정책의 기조는 압축근대화와 그 뒤를 이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도 계속되어온 것이 아니었던가. 그 결과가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이지 않은가.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운용이 문제다. 경제 문외한의 무식한 판단이지만 마차를 말 앞에 매는 것 같다. 안정된 일자리를 위해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을까. 말

하자면, 기업을 위해 대학이 인력을 만들어내는 대신 대학이 만들어내는 인력을 위해 기업을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광은 조금 의심스럽지만 '소득주도형 성장론'을 기조로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반갑다. 정권의 수반이 동문이어서만은 아니다.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말이 경제현장에서 정확히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최근의 우수성을 넘어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에까지 관철되기를 바란다. 적어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를 호령해온 수출대기업 중심의 성장론이 만들어낸 여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시도이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미 2010년경부터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주창해온 것이다. 국정농단으로 허송세월을 하느라 도입이 조금 때늦은 감이 있지만, 임기 후 등용문을 들어서는 그를 토의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며 산업의 관성도 완강할 것이다. 하지만 언제나 적은 내부에 있다. 벌써부터 청와대 안쪽에서 불협화음이 들려오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폭과 속도에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이 균열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기조 전체를 관통하게 내버려두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국은 젊은이들이 일자리 걱정은 덜하면서, 토의 점수에 목매달지 않으면서, 아르바이트 잘릴까 걱정 덜하면서, 제발이지 책 좀 읽어보고 수업에 들어오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67년을 끌어온 내전을 종식하는 건 어렵게 이루어질 것 같다. '아재'들이 한 건 하면서 무능의 상징을 하나는 벗어던지는 셈이다. 남은 건 소수의 기업과 족벌의 갑질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들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기업을 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부와 명예를 떳떳하게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머리 훈동문이여, 분발하시라. 수요일 하면 빨간 장미만 떠오르는 아래 상상력밖에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임기 후 등용문을 들어서는 그를 토의 대신 인가탐에 연연하는 후배들이 반가이 마중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 오윤자의 마음코칭 - ⑦

### 행복을 유예하지 말고 소확행의 일상으로

오윤자  
(생활과학대학 학장)

"속절없이 시간은 가고 종강이 다가왔는데 개강 이후 어떻게 살아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동바등하는 건지요. 내안에 무엇이 있는 건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그런데 엄마는 행복하기 위한 고생이나 참으라고, 아빠도 너보다 더 힘든 사람이 많은데 뭐가 불만이냐면서. 친구조차 너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하고....."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략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힘이 없고 눈 마주침도, 감정도 없고 남의 얘기하듯 무성의하던 생각이 드는가 하면 또 다른 경우는 자신감이 있고 눈도 반짝이지만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망설임이 있어 불안이 느껴진다. 대화의 내용과 태도는 너무 다르지만 요약하면 두 유형 다 오늘은 행복하지 않다고, 내일의 행복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은다. 나는 신속히 얼굴 균육을 풀고 눈꼬리는 내리고 입 꼬리는 올리며 질문한다.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자신에 관해

아주 작고 좋은 것을 한 가지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기다린다. 그 짧고 굵은 기다림 속에서, J.D. 밴스의 자전적 소설 <힐빌리의 노래> 주인공처럼 상담자 역시 기억 속에서 자신이 행복했다는 사소한 기회들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상에서 작지만

#### 화고한 행복을 찾는 삶

교실과 가정에서 자라면서 태도와 습관, 기대 등을 만들어 왔다. 청년기를 맞기까지 대부분 주위로부터 과정이 아닌 결과만을, 여행이 아니라 도착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분법적 사고나 선택적 추상화에 이숙한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반대로 행복의 교육이나 멈춰 서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일러주는 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면 그런 방식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적으로 행복이다. <헤피어: 하버드대학 복학 강의>와 같이 행복을 주제로

한 일부 서적을 보면, 행복주의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아울러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만족을 얻는 것 또는 의미 있는 삶으로서 개인의 능력과 가치에 따라 성취해 나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지름길은 없고 매사 그렇듯이 행복은 인내가 필요하되 스스로 움직여 만들 어낸 일상적인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권한다. 또한 행복하기의 기본은 관심으로, 이것이 행복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마음 향기이나 기도를 통해 주변에 의식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알아차리라고 일리준다.

현대인 중 많은 사람이 행복유예증후군(Deferred Happiness Syndrome)을 가진다고 한다. 이는 언젠가 보상이 따르리라는 희망에 현재 누려야 할 행복을 희생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견디는 상태다. 행복주의, 행복하기, 행복유예증후군 등 일련의 사실들은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을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니, 행복하기 위해선 달라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2018백상예술대상 TV부문 여자 예능상을 수상한 송은이 씨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잘 보고 누군가를 빛내는 역할이 자신에게 더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지금 어덟 번째의 전성기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26년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준비한 덕분에 아홉 번째 전성기도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한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서랍 안에 반드시 접어 돌돌 말린 깨끗한 속옷이 진짜 쌓여 있다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작지만(小) 확고한(確) 행복(幸)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 내일의 행복보다는

#### 오늘의 행복지수를 올려야

사례의 학생에게도 자신의 장점을 사실적으로 하나씩 열거해 보면서 소확행을 확대하는 일상을

만들어 가도록 돋고 싶다. 내일 보다는 오늘의 행복지수를 올려려야 한다. 우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니 현재 동기와 목표를 구체화하거나 수정해 장점적인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본다. 이와 함께 자신이나 친밀한 사람을 상대로 적개라도 감사 일기나 행복한 메모를 써 차곡차곡 쌓아서 조금씩 더 크게 키워가는 것이다. 상담에서 사용하는 심리검사도구 중 '문장완성검사'는 첫 단어가 몇 개 적혀 있는 미완성의 문장을 기초로 현재의 자신을 생각나는 대로 서술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다음의 문장을 어떻게 완성할지 궁금하다.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은 \_\_\_\_\_.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_\_\_\_\_. 지금부터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한다면, 나는 \_\_\_\_\_.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행복한 것은 한 학기 동안 마음코칭 연재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사실이다.

## 참여마당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교과 기존 시간강사

## 월드컵과 후마니타스칼리지

감동적인 사건에는 이야기가 있다. 한계를 뛰어넘고 경계를 가로지르는 열망이 빛어내는 이야기다. 내게 있어 2002년 월드컵은 그런 사건이었다. 공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유학 시절 나는 텔레비전으로 한국 대표팀이 4강 신화를 쓰는 것을 지켜보았다. 헛발질만 해대던 팀이 세계적 수준의 팀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과정이었다. 오리를 백조로 만든 이 놀라운 변신이 히딩크라는 훌륭한 감독과 코치진 그리고 선수들이 함께 이룩한 업적이었음은 새삼 논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내게 두 번째 감동적인 사건은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출범이었다. 히딩크처럼 비전을 가진 지도자와 많은 교수자의 협력이 낳은 결작이었다. 내가 이 감동적인 사건에 '후마니타스 교수'로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은 영광이었다. 중핵교과에 시간강사의 직위로 소속된 나는 객원교수들과 함께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에 내용을 채우고 그 내용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초창기 2년 동안 우리는 거의 매주 토요일 워크숍을 열었다. 오고가는 비판과 격려를 통해 우리들은 내용을 숙지하고 방법을 고민했다. 교육이념에 대한 공감에서 우리나라 사명의식으로 중핵교과는 더 단단한 교육공동체가 되었고, 이런 유대감으로 객원교수와 시간강사는 하나가 되어 '후마니타스칼리지'로의 순향을 기원했다.

## 우리도 후마니타스칼리지 선수다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객원교수와 시간강사는 근무조건과 처우에 있어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차이는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순향이란 대명제 앞에서는 급료나 시간배정에 있어서의 별 의미 없는 차이에 불과했고, 또 이 대명제의 실현이 가까워질수록 이 차이가 지워질 것이란 약속과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다수인 객원교수와 소수인 시간강사를 통칭하던 '후마니타스 교수'라는 명칭은 점점 퇴색되었고, 마침내 중핵교수들은 객원교수와 시간강사라는 두 계급으로 나뉘었다. 다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간강사를 차별했고, 행정책임자에게는 인적자원의 통제를 통한 인건비 절약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 차별은 더욱 뚜렷해졌고, 마침내 시간강사는 시간강사이기에 열등한 교육자로 낙인찍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중핵교과 객원교수는 비정년 전임교원으로 신분전환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중핵교과 시간강사들은 1년 후면 전원 해고될지 모른다. 지난해 12월 총장님의 지시까지 받아낸 중핵교과 시간강사의 신분안정화 방안이 좌초하면서 그 과정이 시강강사의 전원 퇴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2002년 월드컵이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4강에 올랐기 때문은 아니다. 박지성, 안정환 같은 스타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전체 팀원이, 그리고 히딩크라는 걸출한 감독을 비롯해 무명의 코치진까지 그 공을 골고루 나누는 훈훈한 장면도 있었던 것이다. 차별을 감수하며 동일업무에 종사해온 시간강사들을 아내면서 객원교수의 신분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정신과 얼마나 부합할까. 우리도 후마니타스 선수다. 우리에게도 공을 달라.

\*시간강사들의 공동작업물로, 특정 개인이 아닌 중핵교과 시간강사 명의로 표기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

# “울며 겨자 먹는다”… 가격 올라도 학식 불만 여전

## 국제캠 학식 만족도 설문조사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국제】 학생식당(학식) 가격이 인상된 후 이에 대한 국제캠퍼스(국제캠) 학생 만족도 조사를 위해 우리 신문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국제캠 제50대 총학생회(총학)와 함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332명이 응답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식에 만족한 응답자는 총 12명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라 답한 인원은 총 233명으로 학식을 이용하는 응답자 281명 중 82.9%가 학식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식에 만족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맛’이었다.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233명 중 93명이 ‘맛’을 불만의 이유로 꼽았다. 한 응답자는 주관식 응답에서 “지리적인 문제로 시간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먹고 있다”라고 답했다. 학식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51명 중 21명 또한 그 이유로 ‘맛’을 들었다.

지난 3월 국제캠 학생회관, 생활관, 공과대학 모든 학생식당(학식) 가격이 일제히 인상된 바 있다. 학식을 운영하고 있는 한화 푸디스트는 최저임금 상승, 원가부담으로 인한 식질 유지 어려움, 급식 품질에 대한 요구 상향평준화를 이유로 학식 가격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회관, 공과대학 식당에서 2,800원이었던 한식 메뉴는 3,500원으로, 3,200원이었던 양식 메뉴는 4,000원으로 올랐다. 5,000원에 먹을 수 있었던 즉석 떡볶이는 7,000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지난 4월 즉석 떡볶이와 조식 등 일부메뉴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인하됐다.

급식업체측이 학식 단가 인상 이유로 급식 품질 상향평준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식 이용자 281명 중 255명, 90.7%가 인상된 학식에 불만족을 표했다. 인상된 학식에 대한 만족도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학생들이 학식 가격 인상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맛’(104명)이었다. 73명이 ‘가격’을 불만의 이유로 선택해 그 뒤를 이었다. 학식 가격이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음식의 맛과 질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 역시 126명의 응답자가 ‘맛’이라 답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식에 품은 불만은 ‘맛’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렵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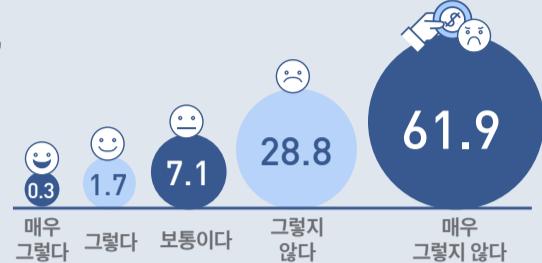
## 01

가장 자주 이용하시는 학생식당에 만족하십니까?



## 02

이전과 비교하여, 가격 인상 후 학생식당에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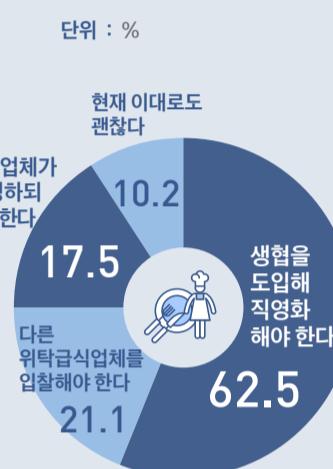
## 03

학생식당이 가장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단위 : %

설문 대상 : 국제캠 학부 재학생  
설문 방식 : 이메일 설문조사설문 기간 : 6. 1. ~ 6. 8.  
응답자 수 : 332명

## 04

학생식당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05

응답자 모두가 말하는 현 학생식당의 문제점

맛없다 가격  
서울캠 그대로 영양소  
불만족 퀄리티  
생협 가성비  
메뉴 비싸다 맛  
개선 적다

“

생협 도입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다.  
양질의 학식 유지에  
수요자인 학생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

관식 문항의 답변을 살펴보면 “가격 대비 음식의 맛과 질이 별로다”라는 대답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소위 음식의 ‘가성비’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학식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크지 않은 점 역시 불만의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 1일 학생회관 학식 4,000원 양식메뉴는 짬짜덮밥, 달걀 파국, 모둠탕수육, 짜사이채무침, 배추김치를 제공했다. 이는 양식 메뉴 가격이 800원 인상되기 전인 지난 12월 22일 짬짜덮밥과 짜장소스, 유부미소국, 탕수육, 단무지무침과 큰 변화가 없다.

학생들은 ‘생활협동조합(생협) 도입 후 학식 직영화(207명, 62.5%)’를 학식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꼽았다. 생협이 도입되면 ‘합리적인 가격’에 학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생협 도입에 찬성한다

는 강다현(한국어학 2017) 씨는 “생협 도입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 때문”이라며 “양질의 학식 유지에 실질적인 수요자인 학생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미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지난 2011년부터 생협이 학식을 직영하고 있다. 지난 3월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캠 생협 관계자는 “이미 서울캠에 생협이 있기 때문에 국제캠에 지점만 내면된다”라고 답한 만큼 생협 도입이 전혀 현실성이 없는 대안은 아니다. 다만 그간 국제캠 내 업체들과 맺고 있던 계약과 임대료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생협은 비영리 단체로 임대료를 내지 않으며 수익의 대부분을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캠 학내에 있는 외부 업체들과의 계약문제 또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인상된

학식 가격, 국제캠 학생 여론은 ‘싸늘’/대학주보 제1631호, 2018.03.12)

한편 현재 한화 푸디스트가 운영 중인 제2기숙사 식당은 오는 6월 말 계약이 만료된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목전에 두고 생협 도입 계획은 없으며, 오는 30일까지 외부업체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 생활관 유중근 계장은 “학생의 만족도에 중점을 두고 품질과 메뉴의 다양성을 고려해 제안서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학생식당은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 대학을 답사하고 벤치마킹 하려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과대학과 학생회관 학식은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된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국제캠 총학은 “학생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접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 대학

# DGIST

2019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융복합 대학 DGIST에서  
지식창조형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E8

▣ 봄학기 전형 원서접수

**6. 28(목) ~ 7. 12(목)**

▣ 전공별 모집과정

전공	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정보통신융합전공	석사과정,
로봇공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
에너지공학전공	박사과정
뇌·인지과학전공	
뉴바이올로지전공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가능

▣ 서울 입학설명회

**6. 29(금)**

엘타워 B1층 루비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외국인 학생 13:00~15:00
- 국내 학생 16:00~18:00
- 외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별 간담회 등
- DGIST 입학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문의처 Tel : 053-785-5146 E-Mail : admission@dgist.ac.kr Website : admission.dgist.ac.kr

DGIST 캠퍼스가 궁금하다면? (가상캠퍼스투어)  
[www.dgist.ac.kr/virtualtour](http://www.dgist.ac.kr/virtualtour)